

전남 농촌 소멸 막아라...빨래방·점빵 등 생활 인프라 확충

화순·영암·영광 등 민·관 협업 서비스 인프라 보강...정주 여건 개선
고령화·인구 감소 속 ‘일상 회복’ 노력...청년농 위주 협동조합 운영도

전남 농촌지역들이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기초생활서비스 확충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민·관 협업을 통해 세탁·상점 등 부족한 서비스 인프라를 보강하는 등 ‘농촌 살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이 최근 발표한 ‘저출생 초고령화에 대한 농촌정책의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을 비롯한 전국 농촌은 고령화 및 인구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이에 따라 노동력 부족, 소비 기반 축소, 생활서비스의 과소 공급 등 다양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 등 각종 인프라 부족은 농촌지역의 ‘인구 이탈’ 문제를 가속화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고용시장이 침체돼 농촌 청년들은 수도권 또는 인근 대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는 데다, 의료·상점 등 생활 편의성 및 삶의 질과 관련된 기초서비스도 인근 도시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남 농촌지역에서는 민간 영역 또는 민·관 협업 형태로 다양한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노력 등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탁 서비스다. 화순군과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이 운영하는 화순 ‘사평 빨래방’은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빨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 등 무료, 일반 군민도 세탁방 대비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평 빨래방은 세탁 서비스를 위한 전담 인력에 지역민을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영암 ‘기찬 빨래방’도 비슷한 사례다. 기찬 빨래방은 영암시니어클럽과 영암 농·축협,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하며, 운영비·인건비 등 비용 처리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동형 세탁차량을 통해 하루 평균 18가구, 연간 2300

여가구에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소비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서 농촌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진 편의점, 마트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상점 서비스도 운영 중인데, 지역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영광군 묘량면에 있는 ‘동락점빵’은 동락점빵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민간 상점 서비스로, 2011년 상점 서비스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귀촌인들이 결성한 주민 공동체 ‘여민동락’이 첫 영업을 시작했다. 이어 2014년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해 현재는 조합원만 395명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동락점빵은 지역 소매점 공백을 채우기 위해 매주 목·금요일에 묘량면 소재 42개 마을을 방문하는 이동형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내 젊은 세대가 상점 유지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결속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의 농촌 자립을 돕는 협동조합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곡성군 ‘항구네협동조합’은 53명의 귀농·귀촌인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논 1300평, 밭 1000평 등을 공동 경작하고 있다. 초기 정착자금 및 지속가능한 경영 부담이 큰 귀농·귀촌인들이 공동 경작지를 확보하고, 품앗이 등 공동노동, 농기자재 공동이용, 법인 농지 무상 임대 등 협업을 통해 부담을 절감하는 방식이다.

또 귀농 청년 세어하우스 ‘꿈앤들’, 작은도서관 ‘책담’, 마을카페, 공유부엌 등 다목적 공방 등 공유재를 운영하며 귀농 청년의 농촌 마을 적응을 돕고 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 출범 초기 중장년층 중심 운영에서 현재는 지원을 받았던 새로 유입된 청년농들이 운영 주체로 성장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마음으로 ‘농심협력’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이광일)는 지난 14일 전남본부 2층 대강당에서 전남·제주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 소속 조합장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다. 이들은 이날 ‘동심협력(同心協力)’ 정신으로 ▲농작업 대행 직영면적 확대 ▲영농 전 과정 종합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추진키로 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전남 축산농가에 2472억 투입...스마트·친환경 농가 전환 추진

품질 고급화로 경영 안정 도모

전남도가 올해 축산농가 경영 안정과 가축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107개 사업에 2472억원을 투입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5대 축산 정책 추진 전략으로 ▲환경친화 축산기반 구축과 스마트 축산농장 육성 ▲패적인 축산환경 조성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안정적 판로 확보 ▲축산농가 경영 안정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 등을 삼아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환경친화 축산기반 구축과 스마트 축산농장 육

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191억원), 녹색축산 육성자금(200억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44억원),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10억원) 등 14개 사업(528억원)을 추진한다.

또 패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확충(116억원), 퇴비 부숙 촉진(26억원), 악취 저감 시설·장비 지원(16억원), 악취 저감용 미생물 공급(75억원), 퇴·액비 자원화(67억원),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구축(65억원) 등 15개 사업(421억원)을 진행한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950억원), 한우 송아지 브

랜드 육성(30억원),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32억원), 가축시장 현대화(18억원), 축산물 가공·유통시설 확충(28억원), 축산물 이력관리 강화(19억원) 등 4개 사업(1312억원)을 추진한다.

경영 안정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100억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17억원), 폭염 피해 예방시설 지원(13억원), 사료구매자금 대출이자 지원(12억원), 한우농가 삶의 질 향상 지원(10억원) 등 16개 사업(114억원)도 실시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전남도, 자카르타 수출상담회 참가 기업 모집

23일까지 신청...관측 부스 임차·통역·항공료 등 지원

전남도가 오는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26 자카르타 수출상담회 및 농수산물품 판촉전’에 참가, 전남 농수산식품을 전시·판매할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전남에 분사나 공장을 둔 농수산 가공식품 생산·유통기업으로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제품 개발과 포장 디자인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전남도는 12개 기업 내외를 선정해 수출상담회와 현지 판촉전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로 전남도 수출정보망 누리집(www.jexpor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되면 인도네시아 식약청

(BPOM) 인증 취득 비용(기업당 2개 품목)을 비롯해 수출상담회장 및 판촉 부스 임차·설치비, 통역 지원, 현지 이동 차량, 항공료 일부 등이 지원된다.

또 인도네시아 전역에 매장을 운영 중인 현지 마트에 약 1개월간 제품을 입점해 현지 소비자 반응을 직접 확인할 기회도 제공된다.

자카르타 쇼핑몰에서 전시·시식 중심의 농수산 식품 판촉전을 열고, 현지 바이어와 1대1 수출상담회도 진행해, 실질적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농식품부, 청년인턴 121명 뽑는다

농업행정·정책 참여 기회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026년 제1기 청년인턴” 121명을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인턴 채용은 청년에게 농업행정 분야의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시 자격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34세의 청년으로 정했다.

인턴 채용 시 어학성적 등 정량적 우대 요건은 반영되지 않고, 지원자의 정책 관심도와 참여 의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책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채용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나라일터, 청년인재DB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 제출 기간은 오는 26~30일이다.

이번 청년인턴은 농업행정과 홍보 등 2개 분야에서 농업·농촌 정책 지원, 행정·홍보 업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인턴들은 오는 3월 3일부터 6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근무지별로 농식품부 본부에 22명,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소속기관은 99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일보 74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고령화에 농기계 시장 침체

판매량 5년 새 40% 감소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 축소 등으로 농기계 내수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농협경제지주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주요 농기계 기종별 용자 취급 관련 판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농기계 판매량은 2만 803대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다.

농기계 판매량은 5년 새 40.1% 축소됐다. 직접 논·밭에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고령 농민들의 해외 인력 등을 통한 영농 작업대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기계 구매 필요성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기계 판매액도 지난해 6850억원으로 전년(6761억원)보다는 1.3% 증가했지만, 2021년(8633억원)에 비해서는 20.7% 감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 든 순 간 을 더 건 강 하 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